

# 내용 충실한 본격 전기물 출판 활기 띤다

## 시리즈물 등 최근들어 잇달아 출간...역사인물소설류 퇴조와 맞물려 이채

우리나라의 역사인물을 다룬 소설의 출간 열기가 식어가면서 국내외의 역사인물을 다룬 '연구서'들이 말그대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인물 연구서는 주로 근현대사의 진보주의자들의 일대기를 평전형식으로 기술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시리즈로 기획되어 출간된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 예컨대 창작과비평사의 '현대인물연구서 시리즈', 한길사의 '이야기한국사인물' 시리즈, 한겨레신문사의 '발굴 한국현대사인물', 실천문학사의 '역사인물찾기' 시리즈, 역사비평사의 '친일과 연구서' 시리즈, 동아일보사의 '근대인물한국사' 시리즈 등이 그것이다. 한편 외국역사인물 '연구서'는 전기·평전·소설·자서전 등 다양한 형식을 자랑한다. 특히 '바흐친'과 '살아있는 사드'를 펴낸 문학세계사는 기존의 '한국현대사인물 연구' 시리즈와 짝을 맞춰 외국작가들의 평전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 역사인물연구서 출간 활발해져

위와같은 역사인물연구서의 출간붐은 시기적으로 야담류 역사인물소설의 퇴조와 맞물리고 있지만, 출판사측은 "오비이락"의 현상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설 동의보감」을 출간함으로써 3년여 지속된 역사인물소설의 독서시장 석권을 촉발시켰던 창작과비평사의 김이구 편집장은 "역사인물소설의 유행을 지켜보면서 우리 독자들의 역사인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그런 이유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인물연구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문학세계사의 김두래 편집장 역시 "그간의 역사인물소설과 최근의 역사인물연구서의 독자층은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오래 전에 출간된 「見者 랭보」의 경우 단시일에 많이 팔린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팔린다는 점을 들며 "꾸준한 독자"를 대상으로 역사인물 평전을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역사인물 연구서가 속속 출간되는 이유는 보다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근현대인물연구서들이 줄을 잇는 것은 "80년대말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워진 연구풍토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최근 「김두봉 연구」(인간사랑)를 펴낸 심지연교수(경남대 정의과)는 연구동기에 대해 "독립운동사에서, 그리고 현대정치사에서 잊혀져가는 인물의 하나인 김두봉을 되찾아나"고

### 90년대 들어 불어닥친 역사인물소설의

태풍에 뒤이어 역사인물을 다룬

평전·전기 등 굵직한 연구물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야담류 역사인물소설의

퇴조와 맞닿아 있지만 독자층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오비이락의

우연한 현상일뿐이라고 한다.

외국의 명평전이나 걸작전기 등

평전문학 걸작도 소개되고 있다.

분석한 것은 냉전기조하에서 경직될대로 경직된 현대사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해방정국에서 명멸했던 다양한 역사인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다. 「그 사람 장육진」(김영사)을 쓴 김형국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장)는 그간 우리나라에 평전류가 부족했던 이유를 "거인은 허점이 있음으로 해서 인물의 크기가 더욱 커진다는 '허물의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화풍토"에서 찾는다. 그는 이어서 "기록을 남기면 다치더라는 우리 현대사의 슬픈 경험도 평전문화의 불모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한다. 즉 우리나라 역사인물 평전류가 이채야 잇따라 출간되는 것은 정치·사회적 외압과 금기가 한풀 벗겨져나간 80년대 말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인물연구의 성과가 비로소 어느정도 무르익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그같은 인물연구는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누락된 인물들이 주종을 이룬다.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빼어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완강 때문에 학문적 접근조차 차단됐던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인 셈이다. 특히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인물들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다는 점이 이채롭다. 「김두봉 연구」(인간사랑), 「조봉암과 진보당」(한길사), 「몽양 여운형」(실천문학사), 「김원봉 연구」(창작과비평사) 등이 그것으로 "관계자료의 발굴과 그 분석작업이 현단계로서는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간될 때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 작업이 역사인물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데 중점이 놓여진다면, 친일파를 다룬 책들은



역사인물소설 출간붐에 뒤이어 역사인물 연구서들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연구의 무게중심이 놓인다. 「인물로 보는 친일과 역사」(역사비평사), 「친일과 99인」 「친일인명사전」(돌베개), 「반민특위 재판기록」(전17권, 영인본, 다락방 펴), 학민사의 '친일연구 시리즈' 등이 그들이다.

### 평전문학 진수 보여주는 책들

외국역사인물연구서는 크게 전기·평전류와 소설로 나뉜다. 근자에 출간된 평전류에는 로맹몰량이 지은 「베에토벤의 생애」(문예출판사), 취엔의 「인간 모택동」(녹두), 「뇌봉」(실천문학사), 「사르트르」(도서출판 창), 「로자 룩셈부르크」(책갈피), 「프리다 칼로」(자유문학사) 등이 한 인물을 통해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상을 실감나게 그려낸 책들로 꼽힌다. 외국역사인물소설에는 '소설 0000'이라는 국내 역사인물소설의 작명법을 본뜬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중 「소설 카프카」(풀빛)와 「겉없이 울어댄 개구리」(돌베개) 등은 저자가 각각 프랑스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프랑수와 리비에르 그리고 미국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소설가인 리처드 세넬트인 것에서 느낄 수 있듯 사실의 정확한 고증과 풍요로운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돼 '평전문학'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국내외 역사인물연구서들은 지난 3년간 출판·독서계를 풍미했던 역사인물소설들이 겪었던 상업주의 논란과 야담류에 불과하다는 작품의 완성도 시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높은 품격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예컨대 「사르트르」의 경우 김화영교수(고려대 불교학과)는 한 서평에서 "전기문학의 한 표본"이

라고 평가한다. "재미를 제공하면서도 장구한 시대와 사회적·개인적 환경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이 예외적인 인물의 사유와 행동을 관류하고 있는 힘의 줄기를 명료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저자와 역자들은 서문이나 해설을 통해 "「소설 0000」식의 작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적시, 한때의 유행이나 사조에 무임편승한 저작·번역이 아님을 강조한다.

### "독자의 인물에 대한 관심 지속"때문

흔히들 "전기나 평전류는 역사서와 함께 고급독자들을 많이 가진 장르 중의 하나"라고 회자된다. 그러나 문학세계사 김두래씨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심층적 연구를 토대로 한 평전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아직 낯선 장르"인 형편이다. 그 낯설다 함은 걸작전기나 명평전이 드물다는 점과 실속 있었더라도 독자층이 없다는 점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처럼 많은 인물연구물들이 역사인물 소설에 뒤이어 출간되는 것에 대해 출판관계자들은 "변화와 혼란의 시대에 자기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알차고 대중성있는 평전이나 전기를 만드는 일이 학계나 출판편집자의 과제라고 창작과비평사 김이구 편집장은 말한다. "거꾸로 읽"거나 "바로 읽"자는 역사서들이 많은 독자의, 호응을 얻었던 것처럼 참신한 시각과 평이한 서술이 어우러지면 역사인물에 대한 평전이나 전기 등이 단지 '고급독자'에게만 읽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김중식 기자